

설 땅 잃은 지역 소상공인

Ⓜ 골목상권 붕괴 위기

파고드는 SSM... 동네슈퍼도 '망할 판'

(슈퍼슈퍼마켓)

광주·전남지역 권역별 거점 유통 시장을 점령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제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대형 유통업체들은 90년대 중·후반 백화점을 시작으로 지역 상권 점령에 나서 2000년대에는 대형마트를 내세워 광주 시내 택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상권을 장악했다. 유통업계에선 유통업태별 배후 인구를 백화점은 30만명, 대형마트는 10~15만명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역에 매장면적 3천㎡이상의 대형 유통업체가 백화점 3곳, 대형마트 14개 인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포화상태인 셈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 들은 골목상권으로 눈을 돌리면서 SSM(슈퍼슈퍼마켓)이 골목상권 점령의 선두에 섰다.

대형유통업체 대규모 자본 앞세워 경쟁적 진출 지역 소상공인들 뭉쳐 공세 맞서지만 역부족

백마트 매장 14곳을 인수한 롯데쇼핑은 오는 16일 광주 문흥점과 양산점, 목포 하당점, 영암 삼호점 등 5곳을 우선 롯데슈퍼로 문을 연 뒤 다음달 중순까지는 나머지 매장 두 리뉴얼을 통해 SSM으로 재 개장할 예정이다. 여기에 SSM의 선두주자인 GS슈퍼도 광주지역 토종마트를 인수해 대형 슈퍼마켓을 개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0여개 슈퍼마켓을 회원으로 둔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기업들의 SSM에 맞서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월 5만원씩 받던 회

비를 없애 1천500여개에 달하는 비회원 슈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서구 벽진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2년만에 전 회원에 개방했다. 연합회 김경남사무는 "유통마진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개방하기는 했지만 유독 브랜드에 약한 지역중소상 대기업이 SSM을 운영하면 박마트보다 타격이 심할 것이다"고 걱정했다. 현재 광주지역 골목상권은 '덧발' 등 일부 지역 브랜드의 유통업체가 신선한 지역 농·수·축산물 유통을 바탕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SSM에 맞서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슈퍼마켓은 수년전부터 동

네 골목까지 진출한 24시간 편의점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마당에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SSM까지 파고들 경우 문란한 업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 봉선동에서 11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초창기에 비해 매출이 30%가량 줄었는데 코앞에 SSM이 들어서면 타격이 더 심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마땅한 대책도 없이 심각하게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SSM(Super SuperMarket) = 영업면적이 300평 이상이고 주차장까지 갖춘 대형 슈퍼마켓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할인점보다 작고 슈퍼마켓보다는 큰 유통형태를 뜻한다.



수원지검 수사관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차체 조립기술 등을 중국의 A자동차에 팔아 넘기다 적발된 현대·기아 차 전·현직 직원 등 9명의 수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5년 노하우 57건 통째로 빠져나가

현대·기아차 전현직 직원 핵심기술 유출 '총격' 세계시장을 82만대 판매분 손실

현대기아자동차의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현직 직원 '산업스파이'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총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기술 유출이 휴대 폰·반도체 등 IT(정보통신)분야에서 발생했지만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자동차업계도 산업스파이로 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5년 노하우 빼져나가=이번에 중국에 넘어간 기술의 주요내용은 현대·기아차가 25년간 노하우를 축적해온 '신차품질보증시스템'과 '금형공정 설비배치도' '신차 개발 일정' 등 57건이다. 특히 신차품질보증시스템은 신차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과 각 조성이 수행해야 할 업무 및 책임이 1개월 단위로 상세히 기록된 경영상 기밀이다. 이로 인해 중국시장에서 자사 차

동차 판매량이 10% 가량 잠식될 것으로 추정됐고, 세계적으로는 82만여대 판매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술보안 '허술'=이번 사건으로 국내 자동차 제조의 핵심기술이 이메일을 통해 쉽게 외부로 빼돌려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술이 '산업스파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차체 보안 규정과 윤리지침을 마련하거나 직원 보안교육을 실시해 중요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이 같은 방법으로는 조직적 기술유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현대·기아차측은 국가정보원이 기술유출 관련정보를 입수해 검찰과 공조수사에 나서기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

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A사에 자료를 넘겨준 현지 직원들의 경우 현재까지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옛 동료의 부탁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도덕 불감증'에 의한 범행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산업스파이' 현황과 대책=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96건으로, 업계에서는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을 95조9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발건수는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술 유출자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기술유출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회 中企 주간행사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본부장 강영태)는 제 19회 중소기업주간(14~19일)을 맞아 중소기업인의 자기진작과 경영의욕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14일(오후 2시, 중소기업지원센터)다수공급계약(MAS)제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16일 중소기업 지원수기관 포상, '중소기업 육성 및 금융지원 방안'에 관한 신문지상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 또 이날 여성정공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위원 등 50명이 참가, 대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17일(오전 10시, 광주센터별 관광호텔) 외국인연수생 위로행사, 18일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인직원 등반대회, 22일(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 '21세기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마련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소비심리 회복...경기 둔화 진정

KDI "올 성장률 4.4%"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가 진정되고 있어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성장률이 작년 1·4분기에 6.3%를 기록한 이후 작년 4·4분기에 4.0%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1·4분기에 4.0%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부문별로 산업생산 증가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내수와 관련된 서비스생산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고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올해들어 4월까지 15% 안팎의 견실한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은 아니며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주택가격도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KDI는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작년 말에 전망했던 4.4%를 유지했지만 민간소비(3.9%→4.2%), 총고정투자(4.8%→5.7%), 건설투자(2.6%→4.3%) 등의 증가를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다. 상품수지 흑자(295억달러→256억달러)와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적자(299억달러→261억달러)의 전망치는 축소했으며 실업률(3.6%→3.3%)과 소비자물가상승률(2.7%→2.6%) 전망치도 내렸다. KDI는 대외 부문과 관련, 국제여가의 변동,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직 개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운전·정비부문 통합

포스코가 제철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양제철소 운전·정비부문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광양제철소내 생산기술부와 품질기술부를 제철소장 직할로 운영하고, 설비 공정별 기계·전기부서를 통합해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구정비 조직을 바꿨다. 또 정비기술 스태프와 중앙 정비·제어부문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다시 편성했다. /이종태기자 jilee@

포스코는 이번에 개편한 조직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분장을 재조정하고, 조직단위별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 운영키로 했다. 조직단위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층별 협의회'와 '교류회'도 마련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함께 제철소 내 정비·생산·품질부서 직책부장에 대한 매트릭스(Matrix) 인사 평가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

광주·전남북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명 달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준)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1~31일)을 맞아 광주, 전남·북지역 5만여명의 확정신고대상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확정신고를 권유했다. /이종태기자 jilee@

광주국세청 관할 확정신고자 5만여명 가운데 부동산 양도 4만2천명, 주식(상장·비상장·기타주식) 양도 5천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양도 3천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45만명에 이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와 관련, 광주국세청은 불실신고혐의가 있는 납세자 1천명(전국 1만5천명)에 대해 정정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Cell Banking advertisement for KSCB. Features a large red heart with 'Cell Banking' text. Below it, text describes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암(癌)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cross the region.

Language Camp/Study advertisement. Features colorful text '영어캠프/연수' and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Lists details for '영어캠프'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2007.7.20-2007.8.31) and '영어연수'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and above, 2007.5.1-2007.5.31). Includes contact info for Wawcamp and Hangeul.